

-2019년 제2차 순천시의회 의원 등 공무국외출장 심사위원회 회의록

○ 일 시 : 2019. 10. 25. (금) 16:00 ~ 17:10

○ 장 소 : 의회 소회의실

○ 참석자 : 심사위원회 위원 8명

- 위원 : 이기장, 박경식, 강윤수, 박귀수, 이세분, 강형구, 이복남, 남정옥 위원
- 배석 : 간사(의정팀장), 업무 담당자 등

• 간 사

안녕하십니까? 순천시 의회사무국 의정팀장 ○○○입니다.

바쁘신 일정에도 불구하고 오늘 회의에 참석하여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 드림.

- 오늘 회의 안건은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 보존과 활용정책 사례 벤치마킹"으로 의회사무국 직원들의 테마연수임을 감안하여 주시기 바람.
- 그리고 배부해 드린 공무국외출장 심사기준표 참고하여 공무 국외출장의 필요성, 방문국과 방문기관의 타당성, 출장기간 및 경비의 적정성, 출장자의 적격성 등을 세심하게 검토하여 우리시에 도입할 수 있는 정책제안 등을 위한 자료수집 등 목적에 맞는 연수가 추진 될 수 있는지 등을 심사하여 주시기 바람.
- 그럼, 지금부터 위원장님 주재로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 위원장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람. 위원 12명중 8분이 참석하여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2019년 제2차『순천시의회 의원 등 공무 국외출장 심사위원회』를 시작 하겠습니다.

-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공무 국외출장 계획서의 공무 국외출장의 필요성, 방문국과 방문 기관의 타당성, 출장기간 및 경비의 적정성, 출장자의 적격성 등을 세심하게 검토하시어 지역의 현안문제 해결과 우리시에 도입할 수 있는 정책개발 등을 위한 자료수집 등 목적에 맞는 연수가 추진 될 수 있도록 안건을 심사하는 과정에 위원님들의 고견을 부탁드립니다.
- 먼저 안건별 제안설명과 질의답변을 마치고 안건별 대해 심도 있는 논의를 거쳐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참석 위원(8명)들 모두 심사에 앞서 모두 발언 실시 함.

- 의안번호 제4호,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 보존과 활용 정책사례 벤치마킹" 건을 상정함.
-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 보존과 활용 정책사례 벤치마킹" 건으로 국외출장 계획서를 제출하신 연수단을 대표해서 ○○○ 전문위원의 제안설명이 있겠음.
- ○○○ 전문위원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바람.

• 제안설명 ○○○전문위원

반갑습니다. 먼저 의원들과 함께 하지 않고 별도로 직원들로만 구성하여 연수를 할 수 있도록 배려 해주신 의장님과 부의장님께 감사의 말씀 드림.

- 의안번호 제4호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 보존과 활용정책 사례 벤치마킹”이란 주제를 가지고 국외연수를 하게 될 팀을 대표해서 제안 설명을 드리게 된 순천시 의회 전문의원 ○○○임
- 회의서류 1쪽, 이번 연수팀은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을 가진 인도 북부의 문화체험을 통해 문화 예술 도시 정책 발굴 및 관광활성화 사례를 공유하는데 목적을 두고 있음.
- 연수기간은 2019. 11. 4.(월)부터 11. 9.(토)까지 5박 6일의 일정임.
- 연수대상 국가는 인도이며 주요방문 도시는 델리, 아그라, 자이푸르임.
- 연수팀 인원은 순천시의회 사무국 공무원 8명으로, 연수비용은 총 1,184만 6천원, 1인 평균 148만 원임.

다음 2쪽, 연수일정은 2019. 11. 4.(월)부터 11. 9.(토)까지 5박 6일 임.

- 구체적인 일정은 연수 1일차는 인천공항에서 출발하여 델리에 도착하는 일정이고
- 연수 2일차는 유네스코 문화유산 쿠톱탑을 둘러보고 아그라 지역으로 이동하는 일정이며,
- 연수 3일차는 또 다른 유네스코 문화유산인 타지마할과 아그라성 관람을 통해 문화재의 관광자원화 현황을 직접 체험해 보고 이를 통해 우리시의 자원을 활용한 관광 활성화 방안에 대해 생각하는 계기를 갖고 자이푸르로 이동하는 일정이며
- 연수 4일차는 무굴양식의 정원이 내려다보이는 암베르성과 세계문화유산으로 천문학의 기술이 담긴 잔타르만타르 천문대를 둘러보는 일정임.
- 연수 5일차는 평화의 상징 바하이사원과 나눔을 실천하는 종교인 시크교 사원 방문 후 델리에서 인천으로 출발해 6일차 아침 10시 인천으로 귀국하는 일정임.

방문지 정보등 기타 내용은 3쪽부터 9쪽까지 회의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람.

다음 10쪽, 순천시에는 불교사찰인 선암사가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에 등록되어 있고, 순천만 갯벌(서남해안)과 낙안읍성이 잠정목록으로 등재되어 있음.

- 중국, 일본은 우리와 비슷한 문화성을 가지고 있어, 이번 저희 연수팀에서는 우리나라와 교류는 하고 있지만 쉽게 접하기는 힘든 4대 문명의 발상지인 인도의 문화유산 답사를 계획했음.
-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 보유국 6위 국가이고 유럽보다는 가깝고 또한 비교적 저렴한 비용으로 인도의 세계문화유산 관리 실태와 활성화 사례를 벤치마킹하여 우리시 문화자원 및 관광 인프라에 접목할 수 있는 방안을 도출하고자 함.

또한, 이번 연수기간 동안 직원 상호 간 활발한 토론 등을 통해 발전적인 정책 대안을 제시하고 서로간의 역할을 배분하여 효율적인 연수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음.

- 그리고 연수 후 토론을 거쳐 시정에 접목 가능한 방안 등을 담은 결과보고서가 작성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음.

직위별 연수 경비 산출내역은 회의서류를 참고하여 주시고, 저희 연수팀에서 제출한 공무 국외 출장 계획을 원안대로 의결해 줄 것을 부탁드리겠음.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음.

• 위원장

수고하셨음.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람.

- 의안번호 제4호"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 보존과 활용 정책사례 벤치마킹"건에 대해 제안 설명 하신 ○○○전문위원에게 질의 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람.

• ○○○ 위원

심사 기준표를 보면 1일 최소 1개 기관 방문 여부를 판단하게 되었는데 연수 내용을 보면 현지를 보고만 오는 것인지 아니면 문화유산을 유네스코에 등재를 위해 어떤 정책이 있는지 어떻게 등재를 하는지 등에 대한 관계기관의 면담이나 간담회가 있는지 없는지에 대한 설명이 없음.

• 제안설명 ○○○전문위원

그 부분은 준비 못함. 외부기관을 섭외하려면 상당한 기간이 필요한데 기간이 짧아 준비하지 못함

• ○○○ 위원

연수 계획서에 대한 사전 검토 하였음. 그동안 직원들이 의원들을 의정지원해 오면서 직원들만 구성하여 연수를 간 적이 없었기 때문에 반가웠음.

- 자료를 보면 출장목적, 연수일정, 경비지출 예정 계획은 모두 나와 있음
- 하지만 심사해야 될 항목 중 연수의 필요성은 보면 동일목적으로 방문한 적이 있는지 여부를 판단 하려면 관련 자료를 제시해야 하고 영야하고 방문 보고서도 제출해야 하는데 관련 자료들이 하나도 없음.
- 기관 방문 계획이 있는지에 대해서는 일정이 촉박해서 섭외를 못했다는 것은 말이 안 됨.
- 연수목적을 어떻게 달성할 건지에 대한 목표가 세부적으로 나와야 함.
- 하다못해 현지에서 통역은 누가 할 것이며 1일차는 어떤 기관을 방문하여 문화유산을 유지 보수하기 위해서는 어떤 노력들을 하는지를 사전 조사하여야 함. 거기에 대해서 우리시는 어떠한 것들을 참조해야 하는 것인지에 대해 분명한 목표가 있어야 하는데 거기에 대한 것이 전혀 안 보임.
- 수집하려는 자료가 무엇인지? 사진만 찍고 오실 것인지 아니면 현지에 가서
- 담당자를 만나 면담을 통해 어떤 관광자원을 활용하는 노하우를 배울려면 거기에 대한 담당자 면담 계획 등이 있어야 하는데 전혀 없음.
- 1일 최소 1개 기관을 방문하는가 등의 심사기준을 나누어 주었으면 거기에 대한 자료를 주어야 하는데 그런 자료가 전혀 없음. 연수 계획서에 없는 자료에 대해 "예"라고 할 수 없음. 없는 자료에 대해 "아니오"라고 답을 해도 문제가 없는 것인지요.
- 공무원 여비규정에 따라서 직급별로 예산편성을 달리하는 것은 이해가 됨.
- 하지만 식비도 다르게 책정되어 있는데 그럼 메뉴를 다르게 드실 건지 이런 것도 통상적으로 예산 편성하는 것인지 전체적으로 이해가 안 됨.
- 회의를 핑계로 회의를 참석하지 않을려고 하였음. 이런 계획에 대해 심사를 하였다고 나중에 다른 사람들이 책임을 물을 것인데 회의를 해야 할 것인지 고민이 됨,

- 제안설명 ○○○전문위원

네. 좋은 말씀임. 저희 직접 현장에서 체험해 보고 거기에서 배우고 느낀 점을 결과보고서에서 말씀 드릴려고 했는데 그런 부분이 부족했던 것 같음.

- 여비 관계는 직급별 규정이 다르기 때문에 그런 것 같음.

- ○○○ 위원

여비관계는 예를 들어서 드린 말씀 임. 회의 자료를 만들땐 방문지 정보를 줄 것이 아니라 문화유산에 대한 관광자원화 등의 운영 자료를 조사해서 위원들에게 주어야 이런 내용들을 배웠으면 좋겠다는 조언이나 심사 등을 할 수 있는데 그런 자료들이 전혀 없음.

- 이렇게 방문지에 대한 정보만 주면 심사하는데 아무런 필요 없는 자료임.

- 인터넷에 있는 자료를 조사해서 제출했는데, 이왕 인터넷을 조사 할려면 어떤 것을 보고 배울 것인지를 파악해서 관련 자료를 확인하고 제출해야 하는데 키워드를 치면 나오는 정보를 여기다 주면 심사를 하라는 말인지 하지 말아라는 말인지...

- ○○○ 위원

○○○위원님 말씀이 맞음. 제가 보기에도 자료가 많이 부족함.

- 당초 계획 의원 수행 다른 위원회 소속해서 갈려고 했는데 의장단 회의에서 의원들이 보는 관점과 직원들이 보는 관점이 다를 수 있으니 참고해서 가는 것으로 하자고 했는데 시일이 촉박하여 계획서에 담아내지 못하고 실무적으로 여행사를 섭외하여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음. 제가 보고 받기로는 그쪽 현지 가이드가 순천만국가정원도 해설사들이 설명 해주는 것처럼 기관 방문이나 현지 사정에 맞게 조율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음.

- 국외출장 심사기준표의 항목들을 모두 만족해야 하는 것은 아니지만, 전문위원께서도 세심한 검토는 이루어지지 않은 것으로 보여 짐.

- 직원들끼리만 구성하여 연수를 처음 실시하다 보니 실수도 많고 많이 부족한 것은데 그런 부분들은 ○○○위원께서 최소한의 부분들을 권고하여 보완하는 것은 어떨까요? 최소한 1개 이상의 기관방문이라든지 연수내용을 결과에 담아낼 수 있도록 내용적인 면들을 권고 하는 것은 어떨까요?

- ○○○ 위원

심사 기준표대로 심사를 하면 되는 것이기 때문에 권고할 사항은 아니라고 봄.

- ○○○ 위원

이 내용을 보면 관광을 가나, 여기를 선택해서 어떤 것을 하겠다는 솔직히 느낌을 못 받겠음.

- ○○○ 위원

그러니까 될 수 있으면 세심히 보고 기준표를 참고해서 결과보고를 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음.

- 위 원 장

처음이다 보니까 위원회에서 요구 한 것도 잘 모르고 이제는 이해 했으니, 앞으로는 잘 보완해서 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음.

- ○○○ 위원

일정이 급박하면 목표와 목적을 제대로 설정 못할 것인데 그럼 무얼 보고 뭘 분석하고 오겠습니까? 그럼 굳이 일정이 급박하면 이번달에 가지 말고 다음달에 가면 될 것이라고 생각 함.

- ○○○ 위원

일정이나 여행사를 다 정해 놓고 심의회를 하는 것 자체가 문제가 있음.

- 2년전에도 여행사 다 정해 놓은 상태에서 위원회에서 부족한 부분에 대해 보완해서 다음에 가라고 이야기를 못할 정도로 계약을 체결하여 파기되거나 불허하면 위약금 물고 할 것 아닙니까?
- 이것이 심사위원들은 거수기로 만들고 있음. 이렇게 안했으면 좋겠음.
- 날짜도 보면 11월 4일로 이것은 모든 계약이 이루어 졌을 것 인데 세부계획도 전혀 반영되지 않은 상태에서 직원들끼리 가는 것은 찬성 함. 한번 가더라도 세금으로 가는 것이고 경비도 1천 1백만 원 넘게 들어감.
- 이 부분을 숙고해서 올해 당장 가야하는지, 아니면 다음연도에 가도되는데 굳이 시간 도 촉박하니 계획도 없이 관광성으로 고생했으니 한번 갔다 오라 하는 것은 권고할 사항이 아니라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할 사항임.

- 제안설명 ○○○전문위원

유네스코 문화유산을 보면 다른 지역도 많이 있음.

- 이 지역이 유럽쪽 하고 가장 가깝고 비용이 저렴 함. 문화 유산 보유도 세계 6위 임.

- ○○○ 위원

제목이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 보존과 활용 정책사례 벤치마킹 확산 방안인데 이 지역 델리, 아그라, 자이푸르 3개 지역을 선정했는데 인도는 우리나라의 15배나 큼. 3지역을 정한 이유가 있는지?

유네스코 많이 등재된 지역을 갈려면 아나바드 역사도시나 쿠트브미나르 유적지를 가는 것이 좋을 것 같은데 그 지역은 안들어 있음.

- 그쪽이 최고 많이 등재가 되어 있고 그쪽이 유적지로서 가볼만 한 곳 임,
- 인도에 대해 위원님들도 많이 말씀하셨지만 저도 플러스 해서 말하기가 죄송하지만 안맞는 것은 안 맞다라고 말 할 수 밖에 없음.
- 이 지역은 인도에 대한 정확한 지식과 정보 없이 보통적인 관광지 임,
- 이 부분은 여러 위원님들이 똑같이 말씀하신 것이니 의회에서 겸허하게 받아들이고 공무원들만 갔다 오는 사례가 전혀 없음.
- 의회에서 좋은 제안으로 해서 하신 것 같은데, 전반기 의회가 내년에 바뀌고 또, 어떻게 바뀔지 모르니 이런 부분들은 좀 더 조정하고 권고해서 일단 공무원들만 가는 것인니까 우리 위원회에서 의원님 가실 때 에도 심사 숙고하여 권고도 했음.
- 이번에 공무원들만 가는 것이 부실하여 할말도 많지만 지방자치의회에서 처음으로 실시하는 것이니 약간 수정해서 기관 방문이나 유네스코 등재 방법 등에 대해서 상의도 하고 배우러 가는 것이 때문에 기관도 섭외해서 수정해서 추진하는 것이 좋겠음.

- ○○○ 위원

민간위원님들께서 말씀 하신 부분 충분히 공감 함.

- 저희가 연수계획서를 의회에서 의원님들이 작성한 부분도 있고 직원들이 작성하기도 하는데 이 계획서는 직원들만 가다보니 많이 미흡해 보임.
- 부위원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전체적으로 세계문화유산을 보러 가는데, 3개 지역을 가는데 제가 봤을때 연수팀에서는 문화유산 관련기관이나 민간단체도 있으니 실무팀에서 준비하면서 민간기관등을 파악한 것이 있으면 연결시켰으면 어떻겠냐는 제안을 해 봄.

- 그런 부분 없이 이지역을 들러 보관 온다면 문제가 있다고 봄
- 그리고 보고서 작성은 잘 할 것으로 보임. 그동안 국외연수를 다년오신 공무원들이 많이 있고 예전과 달리 활용할 만한 정책들을 많이 제안하고 있음.
- 그 중 정책적으로 시정에 많이 반영되고 있는 부분들을 감사를 하고 있는데 그 부분들을 보완 해서 지금이라도 실무선에서 파악된 것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음.
- 아니면 근시일내에 연수 일정에서 말씀하신 기관과 어떤 단체를 한 두군데라도 보완을 해서 방문할 수 있도록 권고하면 어떨까 싶음.
- 또한 심사기준표를 작성했는데 강윤수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이 정확하다고 봄.
- 심사를 할려면 이것에 대한 세부자료가 있어야 함.
- 세부자료가 있어야 다녀왔는지 어쩐지, 그리고 심사기준을 가지고 가부가 어느정도되면 심사에 적합한 것인지 이런부분에 대해 설명없이 기준표가 제출되어 있는 부분도 설명이 필요하다고 생각됨.
- 그런 부분에 대해 의정팀장이 설명해 줄 필요가 있고 이번에 직원들이 공무국외출장을 준비하면서 처음이다 보니 준비과정에서 약간의 미흡한 부분이 있는 것 같음.
- 의원들이 국외연수를 가게 되면 좀 더 세부적으로 고민하게 됨
- 민간위원님들께서 철저히 심사를 하기 때문에 아마 이부분이 연수이기는 하지만 약간은 정책적인 비중이 많이 차지했기 때문에 긴장감을 덜 가지고 계획서를 작성한 것 같음.
- 서류는 그렇지만 준비한 것은 더 긴장하고 준비한 것으로 알고 있지만 서류 작성하는데 긴장감이 떨어지지 않았나 하는 것을 지적함.
- 정리하자면 5박6일 일정중 세계문화유산과 관련된 그 쪽에서 집약된 기관이나 단체를 방문하는 것을 한 두군데 포함시켜야 한다는 것과 심사기준에 대해 이후 의회의 공무국외심사 기준을 이렇게 해야 하는 것인지 이 부분에 설명이 필요하다고 생각함.

• 간 사

먼저 심사기준에 대해 설명 드리겠음.

- 금번 5월경 의회에서 순천시의회 의원등 공무국외출장 조례를 개정한 바 있음.
- 혁신안 일환으로 외부에서 논란이 되고 있는 부분을 종식시키기 위해 국외출장을 심사함에 있어 최소한의 기준은 있어야 되지 않나 하는 차원에서 조례를 개정하였음.
- 심사기준표를 작성함에 있어 “예”가 몇 개, “아니오”가 몇 개 이런것까지 구체적으로 조례에 담아내지는 못했음.
- 어느 정도 기준안을 가지고 시사를 했으면 밖에서나 다른 시민들이 어느정도 얘기는 하지 않을까 생각됨.
- 앞으로는 조례에 담아져 있는 내용이기 때문에 심사기준은 이것으로 해야되지 않나 싶음.
- 자료에 대해서는 좀 더 세심하게 담아내지 못한 것은 죄송하고 추후에는 좀 더 세심하게 자료를 준비하도록 하겠음.

- ○○○ 위원

심사기준은 년초에 만들어 조례를 개정했음.

- 작년 연말에 다른 시군의회에서 전국적으로 국민의 분노를 사게 되었는데 순천시의회 만큼은 다른 의회보다 전국적으로 앞서 나가는 의회라고 자부하고 있음.
- 그러기 위해서는 이런 기준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봄,
- 여기에 점수를 매기는 것이 아니라 이런 부분을 검토하고 간다 안간다를 심사위원회 서류에 넣어서 심사할 때 차고하자는 취지임.
- 오늘 자료가 부실하여 못마땅하긴 하지만 의원들이 가는 연수가 아니고 직원들이 그동안 고생했다는 격려, 여러 가지 의정활동 지원에 대한 보상차원인데 준비는 분명히 잘못된 것 같음,
- 위원님들이 일정중에서 어떤 부분이나 어떤 기관을 방문했으면 하는 좋겠다는 지적을 해주면 참고해서 반영할 수 있는지 그것에 대해 빠른 시간내에 보완 작성해서 다시 서면으로 받으면 어떨까 싶음.

- ○○○ 위원

연수에 도움이 되라는 의미로 말씀드린 것임.

- 11월 4일 출발하는 것으로 일정이 확정되어 있음
- 그래서 심의위원회에서 거부하는 것은 모양새가 안 좋은 것 같음.
- 그렇다고 해서 아무일 없듯이 통과시키면 일반 시민들이 심의결과를 보았을 때 거수기 역할 뿐이 안했다. 그 사람이 그 사람이다라는 평가를 받을 수 밖에 없음.
- 위원회가 구성되어 활동한다는 것은 일반시민 선에서 어느정도 밥득할만한 여행계획을 수립하고 결과도 내 놓아야 함.
- 그런 것들을 최소한의 기준을 가지고 심의해달라는 취지로 위원회가 가동되고 있는 것으로 이해하고 있음.
- 그래서 한편으로 도움을 주어야 하고, 한편으로는 일반 시민들 입장에서 냉정하게 평가해야 하는 양면성을 가지고 있음.
- 그런 면에서 이번 연수팀의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 보존과 활용 정책사례 벤치마킹"건은 세계 문화유산을 어떻게 보존하고 활용하는지를 벤치마킹해서 관내의 문화유산을 보존하고 활용할 것인가 하는 정책을 발의하는데 도움을 받고자 하는 것으로 이해됨.
- 직원들의 역할을 적시해 놓았는데 3명이 자료수집 및 정책보고서 작성이라고 작성이라고 되었는데 보고서 작성은 갔다와서 하면 되는 것이고, 무슨 자료를 수집할 것인지는 전혀 없음.
- 회의 진행과 관련하여 제안하면 일단 정회를 해서 오늘 아이디어를 제안하고 다음주에 속개를 해서 서면심사 하든지 뭘 하든지 했으면 좋겠음.
- 그리고 최소한의 조건으로 쿠투탑, 타지마할, 아그라성이나 이런 문화유산이 어떻게 보존되고 활용되는가 이런 정보를 인터넷상에서 정보를 수집해서 예산은 얼마나 투입하고 인력은 얼마나 투입하는가 거기에 대비해서 관광수입을 얼마나 올리고 있는가 이런 정보는 큰 노력을 안해도 가능 할 것 같음.
- 그런 자료는 조사해서 확인하고 그런 문화유산들이 인도에 얼마나 도움을 주는지 자체에 어느정도 도움을 주는지 이런 것들을 총체적으로 분석해서 우리시 정책에 도움을 받으려 한다는 식으로 계획을 작성하면 목표가 있고, 자료수집 계획이 있고, 어떤 자료를 수집하겠다는 자료수집 목표가 있으니 계획의 체계성이 보임.
- 최소한 이정도의 자료를 가지고 심의를 해야지 지금 방문지 정보만 가지고는 무얼 보겠다는 건지 가면 볼 수는 있지만 아무 계획없이 봐도 공부가 될 수 있지만 일반 시민들은 그런 것을 원하자는 않음
- 굉장히 체계적으로 계획을 수립하고 진행했다는 것을 관심을 갖기 때문에 형식을 갖추는 것이 일단 중요함.
- 최소한 하루 이를 정도면 그언 정보는 준비할 수 있으니 계획서에 이정도는 추가했으면 좋겠음.

• **위 원 장**

전문위원님 방금 ○○○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 가능한지?

• **제안설명 ○○○ 전문위원**

네, 세심하게 검토해서 기관 방문 계획하고 방문지 문화자원조사를 체계적으로 해서 다시한번 서면 심사를 받도록 하겠음.

• **위 원 장**

처음이다 보니 좋은 선례를 남겨주시면 내년부터 더 좋은 안이 나오지 않을까요? 위원님들이 말씀하신대로 하겠지요?

• ○○○ 위원

전문위원께 궁금해서 여쭤 보는데 인천에서 델리까지 몇시간 걸리죠?

• **제안설명 ○○○ 전문위원**

6시간 정도 걸림

• ○○○ 위원

델리에서 아그라까지는 몇시간 걸리는지?

• **제안설명 ○○○ 전문위원**

솔직히 잘 모르겠음

• ○○○ 위원

아그라에서 자이푸르까지는 몇시간 걸리는지?

• **제안설명 ○○○ 전문위원**

5시간정도 걸리는 것으로 알고 있음.

• ○○○ 위원

그러니까 저는 이해가 안되는 것이 더 이상 얘기를 안하겠음.

- 전문위원님께서 제가 물어본 이유를 잘 알 것임. 아무튼 잘 다녀오시기 바람,

• **위 원 장**

방금 부위원장님 말씀하신 시간들은 더 보충하시기 바람.

• **제안설명 ○○○ 전문위원**

이동시간과 동선에 대해 더 보완하여 제출하겠음.

• ○○○ 위원

제가 시간이 궁금해서 물어 본 것 아님. 말씀드린 의중을 정확히 알아보시기 바람.

• **제안설명 ○○○ 전문위원**

알겠음. 많이 조정하겠음.

• ○○○ 위원

보완하는데 기한을 정해주어야 할 것 같음. 마냥 기다릴 수는 없음.

• **위 원 장**

위원님 결정된 것이 아니고 ○○○ 위원님 말씀하신 것은 일정을 조정하여 보고 올 수 있는 것도 제대로 보고 와라는 말씀이니 가이드하고 일정을 또 조정할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 ○○○ 위원

저는 자료를 받고 안 가보았기 때문에 구글에서 지도를 찍어 봤음.

- 체크해 보니 그냥 관광상품 나온 것을 정해서 다녀오는 코스 인 것 같았음.

- 그래서 오늘 안건에 의원들이 포함되어 있으면 어떠한 일이 있더라도 통과시키지 않을려고 하였음.

- 사실 직원분들이 고생했다고 보상차원에서 보내주는 것 같아 더 이상 말씀 안드리겠음.

• ○○○ 위원

○○○ 위원님 말씀이 맞음. 관련 정보가 없어 자료가 부실함.

• 위원장

○○○ 위원님처럼 솔직히 인정하니까 보기 좋음

• ○○○ 위원

심사만 하게 하지 말고 심사 하기전에 한번쯤 어디가 좋은지 자문도 구하고 그러면 좀 더 잘되지 않을까 싶음.

• ○○○ 위원

위원장님 몇 년전부터 똑같은 내용으로 얘기했는데 여행사를 먼저 계획 잡아 심의하면 절대 안 됨.

• 위원장

좋습니다. 거기에 대한 답은 하나 임. 계획하기전에 위원회의 회의를 한번 더 하면 됨.

- 위원회에서 이런 안이 있으니 이렇게 해라 하면 거의 그 방향으로 가게 됨. 그렇게 하면 좋을 듯 싶음.

- 간사님 앞으로 회의를 한번하고 종료할 것이 아니라 안건을 심의하기 전에 회의를 한번 더 하는 것을 제안함.

• ○○○ 위원

앞으로 먼저 여행사를 잡지 말고 계획서에 대해 심의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음.

• 위원장

그러니까 아까 ○○○ 위원님 말씀처럼 최종 심의회를 하기 전에 심의회를 먼저 해서 권고 또는 제안하면 그 수정된 안을 가지고 최종 심의회를 하자는 말씀 임.

- 결국 안건 심의회를 두 번 하자는 말씀 임.

• ○○○ 위원

그러면 시민들도 좋아할 것 임.

• ○○○ 위원

안이 나오면 위원들에게 메일로 주어서 의견을 주시면 그 의견을 반영해서 계획서를 만들어 그 안을 가지고 심의회를 하면 좋겠음.

• 위원장

서면으로 하면 의견 조율이 안되기 때문에 회의를 두 번 하면 됨.

• ○○○ 위원

제일 좋은 방법은 ○○○ 위원님 말씀처럼 심의회는 여행사를 미리 정해서 심의회를 하지 말고 몇 달전이라도 심의회를 개최하여 이런 이런 내용으로 한다는 연수 계획서 초안을 주면 그것에 대해 심의회에서 이야기 해 보고 거기에서 도출된 내용을 반영한 안으로 다시 심의회를 개최하는 것이 좋을 듯 싶음.

- 여행사 등 모두 결정한 상태에서 우리 위원회에서 안된다고 하면 서로 불편해 짐.

• **위 원 장**

그러니까 심의 위원들의 의견을 반영하기 위해서는 두 번 하자는 말씀 임.

• **○ ○ ○ 위원**

위원장께서 회의가 소집되면 위원회에 먼저 안을 가지고 얘기하고 그 내용들이 반영 할 수 있도록 제안하고, 반영 안되었을 경우 심의회를 개최하지 않았으면 좋겠음.

• **위 원 장**

그래서 세미나 한번 하자고 제안했음. 세미나 같은 자리를 마련하여 오늘 한 얘기처럼 허심탄회하게 얘기해서 좀 더 발전적인 안이 나올 수 있도록 제안 했음.

- 본 건에 대해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본 건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 수고하셨습니다. ○ ○ ○ 전문위원 들어 가십시오.

• **위 원 장**

심도있는 안건 심사를 위해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 정회를 선포합니다.

• **위 원 장**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 하겠습니다

- 안건의 심사 의결 서명은 의결 후 일괄 서명

공무국외출장 심사기준표에 대비한 자료는 철저하게 준비하고 세계문화유산 보존 및 관리 방안, 유네스코 등재 방법 등에 대해 소통할 수 있는 기관이나 단체 등을 방문하는 안 등을 보완하여 서면으로 받는 것으로 권고도록 하겠습니다.

• **○ ○ ○ 위원**

솔직히 저는 자료가 너무 부실하다고 봄.

• **○ ○ ○ 위원**

○ ○ ○ 위원님과 ○ ○ ○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서류가 많이 부실하니 보완해서 다시 서면 제출하는 것이 좋을 듯 싶음.

• **위 원 장**

네, 그 부분은 보완해서 하는 것으로 답하였음, 전문위원이 좀 더 자료를 파악하고 조사해서 다시 보고 하면 될 것 같음,

• **○ ○ ○ 위원, ○ ○ ○ 위원,**

다음 주엔 의회 의원들이 지난번에 심의해 준 안건에 대해 27일에 1팀, 28일에 1팀이 국외연수를 떠나니 그 부분을 감안해 주시기 바람.

• **위 원 장**

지금까지의 내용을 보완할 것을 권고하고자 자료를 다시 정리해서 위원님에게 보내주면 그것을 가지고 가부를 결정하면 좋을 듯 싶음.

• **○ ○ ○ 위원**

오늘 심의회에서 나온 내용들을 보완할 것을 권고하고 권고한 내용들이 어느 정도 반영되었나를 확인하는 것은 메일로 자료를 받아보는 것으로 했으면 좋겠음.

- 확인도 안하고 해줄 수는 없음.

• 위 원 장

그 부분은 제가 책임지고 확인하겠음.

• ○○○ 위원

그 부분은 다음 주 중으로 보완된 서류를 위원님들에게 메일로 드리고 전화통화해서 이러이러한 부분들을 보완했다고 얘기하고 동의를 구하는 것으로 했으면 좋겠음.

• 위 원 장

권고안에 대해 서류를 정리해서 각 위원님들에게 메일을 보내드리도록 하겠음,

- 전체 심의 위원들 대상으로 세미나 한번 개최해서 이런 문제점들에 대해 사전에 얘기해보자고 건의 하겠음.
- 공무원들과 의원님들도 오늘 회의 내용을 들으시고 다음엔 위원회 보고 할때는 오늘처럼 당황하지 않고 입장 곤란하지 않도록 미리 준비해야 되지 않겠냐는 취지에서 건의하겠음.
- 부의장님께서는 연수를 갔다 오신 후 이런 내용을 의장님께 보고해서 세미나 한 번 개최 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람.

• ○○○ 위원

네, 위원장님 말씀대로 심의회가 심도있게 이루어 질 수 있도록 의장님께 건의해 보겠음.

• ○○○ 위원

제가 보기에는 순천시의회가 인근 다른 지자체 의회보다 상당히 선도적이며 행정적으로도 앞서 나간 의회임. 그런 위회 위상에 걸맞게 모든 면에서 모범이 되었으면 좋겠음.

• 위 원 장

정리하면 오늘 권고사항과 세미나 등을 개최해서 문제점을 미리 도출하면 문제를 쉽게 풀어 나갈 것임.

- 위원님들의 생각과 의원님들의 생각의 폭을 좁히면 얼마든지 쉽고 편하게 갈 것 같음.
- 최종적으로 오늘 회의상에서 권고한 내용들을 다시 정리하여 자료를 위원님 메일로 보내주면 그 서류를 보시고 결과 대한 가부를 의회사무국 직원에게 통보해주는 것으로 하겠음.
- 그럼 간사가 위원님들의 의결 내용을 정리하여 서면 심의회 의결 결과를 정리하도록 하겠음.
- 위원님들 이의 있습니까?

• 참석 의원 모두

이의 없음

• 위 원 장

그럼 방금 말씀 드린 내용으로 의결함을 선포함.

- 이상으로 오늘 2019년 제2차 『순천시의회 의원 등 공무 국외출장 심사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음.
- 감사합니다.